

個體 育苗差가 播種期差 보다도 더욱 커서 均一化 못하였다. 그러나 大量增植에는 衍生이 有利하였다.

早, 晚栽培에 있어서는 晚植보다는 可及의 早植하여 無霜期間의 生育期間을 最大限 活用하는 것 일수록 生育이 旺盛하여 収量增収를 가져왔다.

따라서 早期에 保温育苗하여 終霜後 일찍 本圃定植하는 것이 效果的이라고 생각되었다.

8. "Herianthus tuberosus L."의 塊莖 및 萌芽部에 있어 部位別 磷酸의 變化

(경북大学校 農科大学) 金鍾震*, 黃善浩

동단지 (*Herianthus tuberosus*) 를 供試材料로 하여 總磷酸, 無機磷酸, 有機磷酸 等의 消長에 대해 部位別로 分析実驗한 結果 감자 (*Solanum tuberosum*) 와는多少 다른 경향을 얻었다.

9. 해바라기의 生態的 差異와 収量性에 關하여

(作物試驗場) 崔鉉玉, 柳益相, 金奎真**, 趙俊鎬

最近에 美國을 비롯 India, U.S.S.R, 独逸, Rumania, Kenya 等의 6國에서 導入된 해바라기 品種들에 대한 우리나라 氣象条件 下에서의 生態的 差異와 이에 따른 収量性의 變異를 檢討하고자

25品種을 供試하여 5月 1日播種, 施肥量 N - P₂O₅ - K₂O 12 - 6 - 9 kg / 10 a 栽植距離 70 × 30 cm 3粒 点播로 試驗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.

- 1) 比較的 収量이 높은 水原 1号(68414) Bulgaria, Local black giant, HESA Hybrid 204品種들은 發芽期에서 成熟期까지의 日数가 91日以上으로서 이期間에 있어서의 積算溫度는 1900 °C以上이었다.
- 2) 油分含量이 높은 水原 1号(68414), Perekovic, Local black giant, Hungary, Sunbred等은 開花期에서 成熟期까지의 日数가 65 ~ 70日程度로서 이期間의 積算溫度는 810 °C (± 50 °C) 程度로 그幅度는 比較的 큰便이었다.
- 3) 發芽期에서 발뢰기까지의 日数가 짙어짐에 따라, 桿長이 짙고 葉數는 많아지나 頭狀花重이나 種実重 및 合油率에는 크게 영향하지 않았고
- 4) 頭狀花直徑과 種実重間에는 正의 相関이 認定되었으며 直徑은 19 cm以上에서 重実重이 많은 便이었다.
- 5) 우리나라 氣象条件下에서 種実重이나 油分含量이 높은 品種들은 比較的 發芽期에서 발뢰기까지의 日数가 짧고 開花期에서 成熟期까지의 日数가 긴 品種群이었다.